

朝鮮朝 後期の 濟州島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

朴 用 厚*

I. 머 리 말

濟州島의 防衛 施設이나 制度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活動의 實際 모습에 대해서는 말하는 일이 그리 없었다. 이와 함께 防衛 活動과도 관련이 있는 異國船에 대한 處置의 實際에 있어서도 別로 記錄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일의 實際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興味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濟州牧使 李源祚의 在任 末年인 1843年(憲宗 9) 5月 中旬 漂到한 異國船에 대한 處置의 實例를 들어 살펴봄으로써 朝鮮朝 後期の 濟州島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의 樣相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防衛 및 異船 對處의 實際

1843年 5月13日 濟州島의 西쪽 近海에 異船이 나타났는데 濟州牧의 晩早烽臺와 孟令煙臺에서 發見하였다. 當日 未時 成貼하고 酉時 營에 도착한 明月鎭 萬戶 金錫龍의 馳報에 依하면 晩早烽 別將 尹光日 孟令煙臺 別將 尹宗連 등이 一時에 나와서 報告하기를 “當日 未時 正體를 알 수 없는 異船 一隻이 西쪽 바다로부터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였으므로 左右 隣鎭에도 連絡하면서 銳意 看望한다는 것이었으며 同日 申時 成貼하고 戌時 도착한 萬戶

* 濟州島郷土史 研究家

의 二次 馳報에는 그 異船이 점점 가까이 들어온 다고 하였으므로 異國船이 갑자기 犯境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걱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烽臺 煙臺를 독려하여 失瞭됨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同日 亥時 成貼하고 14日 丑時 도착한 萬戶의 三次 馳報에는 萬戶가 防護軍을 引率하여 異船 近處에 가서 보니 그 곳은 明月鎭 所管인 盍令浦로서 그 배는 물에서 2馬場 되는 곳에 碇泊하였고 船制는 앞은 뾰족하고 뒤는 넓었는데 돛대는 하나였으며 밤이 깊고 달은 희미하여 사람 모양은 볼 수 없었으며 把守를 嚴하게 하여 疎忽함이 없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마침 兼中軍 濟州判官 金鉉復은 貢馬 差員으로 貢船 出航所에 있고 異船 碇泊處까지의 距離가 百餘 間이 되었으므로 萬戶 金錫龍을 假中軍으로 差定하고 譯學 通事 등을 即時 보내어 자세히 問情하게 하였다.

同日 卯時 成貼하고 巳時 도착한 假中軍의 馳報와 倭學 金繼進 通事 李光三의 手本에 依하면 當日 卯時 頃에 異船이 머물고 있는 沿邊에 가보니 風浪이 거칠어 相通할 수 없었으므로 問情은 風浪이 靜止하기를 기다려 行하기로 하였으며 사람 모양을 보니 머리에는 아무것도 쓰지 아니하였고 몸에는 검은 周衣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環刀를 찻는데 倭人과 같았으며 邊情이 時急하여 寸刻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同日 申時 成貼하고 戌時 도착한 假中軍의 馳報와 倭學의 手本에 依하면 當日 申時 頃에 波濤가 멈추었으므로 我船으로 通事를 데리고 異船에 가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영리한 사람 4인이 沿邊에 내려 飢渴을 알리는 表情이었으므로 먼저 차와 술을 주고 이어 이곳에 來泊하게 된 顛末을 물었는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日本 薩州 鹿兒島 사람인데 在番官 2人 船頭 水手 5人 합 7人이요 4月 13日 本浦를 떠나 同州 寶島에 갔고 同月 20日 候風所인 永良部島에 머물고 5月 5日 發船하였다가. 갑자기 東南風을 만나 13日 이 곳에 漂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배에는 公文 符牌가 없고 다만 三枝鎗 2柄이 船中에 꽂혀 있었는데 番官이 다닐 때의 前導 信標라고 하였으며 船制는 앞이 뾰족하고 뒤는 넓으며 간막이 세 곳인데 本板은 3株가 붙어 있어 길이 4把 半 넓이 2尺 두께 4寸이요 左右 杉板이 각각 5株가 붙었는데 길이는 4把 半 넓이는 4尺 半 높

이는 2把요 돛대는 길이 8把 半 圓은 1尺 7寸 帆席은 白木綿 7幅이 붙었는데 길이 7把 席은 1尺 5寸인데 內面에 ‘權現丸’ 3字를 겹쳐 써어 있었고, 汲水 小艇은 1隻인데 길이 1把 넓이 1把요 本板 1株가 붙었으며 左右 杉板은 각각 1株였으며, 배에 실은 물건은 약간의 쌀 소금 콩 뿐이고 그들의 形色을 살펴보니 의심스러운 點이 없었으므로 問情錄과 船中에 있던 文書 卜物件記 等を 即時 上送하는 것이며 漂到한 사람 가운데 官員이라고 부른 사람은 다른 사람과 差等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邊情에 대해서는 慎重을 期해야 하기 때문에 一次 親問하기 위하여 假中軍에게 問答할 만한 사람 3人을 데려오게 하였다. 大洋에 漂流하였기 때문에 놀란 마음이 아직 鎮定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精神을 차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16日 巳時 假中軍이 3人을 데려 營에 왔으므로 牧使는 軍威를 갖추고 뜰 안으로 불러 들였는데 所謂 在番官 2人 中 하나는 검은 周衣에 위에는 푸른 紬衣를 입었고 다른 하나는 검은 周衣에 위에는 흰 斑布衣를 입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과 坐次 先後가 있었다. 食物을 두터이 대접하고 다시 자세히 물었더니 假中軍의 問情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돌아갈 時期를 물었더니 머리를 조아리며 懇請하기를 “海路는 멀고 船體는 極小하여 萬死一生한 목숨이 다시 죽을 곳을 밟을 수 없으니 우리 배를 버려 두고 貴國의 배로 돌려 보내어주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배는 작아도 傷한 곳이 없으므로 바람을 기다려 돌려 보내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뿐 아니라 異國 船舶의 破傷 燒火는 國法에도 없으므로 完全한 배를 버려 두는 것은 더욱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누누이 타일렀더니 그제야 首肯하였다. 그 배가 있는 곳은 西쪽 궁벽한 곳이므로 바람을 기다려 東向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그들의 所願대로 배를 이끌어 州東 別防鎮 管下의 細花浦로 돌렸다. 發船하기 前의 把守 防護 等は 別防鎮 別將 曹錫祐에게 말기고 그들 7名에 대한 供饌는 每名 每日 쌀 2升 닭 2脚 生魚 1尾 미역 1葉 소금 장 기름 柴炭 等 例에 따라 마련하여 朝廷의 異國人 厚待하는 德意를 보였다.

그 배에 있는 書冊과 文書를 자세히 더듬어 보니 書冊은 或은 印하고 或은 謄하여 말을 알기 어려워서 그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記錄하고 보는 글

같았으며 文書는 或은 封하고 或은 軸으로 되어 大小 一定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往復 文書 같았다. 그 밖에 雜休紙도 많이 있어 어지럽고 차례가 없었는데 標紙 件記 종류에 不過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본뜬 만한 것을 가려 書冊 각 1葉 文書 각 1枚와 人形 小畫 祈禱神牌 等 合 20枚의 模本은 卜物 成冊 船制 圖形과 함께 封하여 備邊司로 上送하였고 問情別單을 만들어 올렸다. 問情은 16日 午時에 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問 情 記

問 : 그대들은 어느 나라 어느 地方 사람인가?

答 : 우리들은 日本國 薩州 鹿兒島 사람입니다.

問 : 어느 해 어느 달 몇일 날 무슨 일로 어디서 發船하여 어디로 가다가 어째서 여기에 닿았는가?

答 : 우리들 在番官 2人 船頭 水手 5名 合 7人이 寶島로 가다가 今年 4月 13日 本浦에서 發船하여 同月 20日 同州 永良部島에서 候風하고 5月 5日 出發하였는데 갑자기 東南風을 만나 13日 貴地에 漂到하였읍니다.

問 : 5月 5日 發船하여 13日 여기에 닿았다고 하니 그 동안 8日은 어디에 머물렀는가?

答 : 海上에서 헤매었읍니다.

問 : 그대들은 萬里에 漂流하여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았으니 불쌍하고 다행한 일인데 배를 함께 타고 있는 여러 사람이 모두 無事하고 배에 있는 卜物도 다 完全한가?

答 : 우리들은 모두 無事하고 什物도 完全합니다.

問 : 그대들은 官長이라고 말하는데 어디서 差出하였으며 職位는 무슨 品인가?

答 : 官員 2人은 薩州에서 差出하였고 武官 2品입니다.

問 : 薩州 안에는 寶島 在番官만 있는가?

答 : 그 사이에 7島가 있는데 寶島 口之島 中之島에는 番官 各 2人이 있고

그 밖의 臥蛇島 惡石島 平之島 諏訪島는 小島이기 때문에 원래 官員이 없어서 3島 官員이 兼察합니다.

問: 그대들의 姓名 年歲를 自筆로 써바치시오.

在番官 大口保源之丞 年 21

福田彦之丞 年 35

船頭 喜助 年 54

水手 喜右衛門 年 29

正信 年 21

勘太郎 年 26

治助 年 18

問: 반드시 公文 符牌가 있을 줄 아는 데 내어 보이시오.

答: 公文은 別로 없고 있는 文書를 바칩니다.

問: 在番官은 몇 해에 逡職하며 1年 廩料는 얼마인가?

答: 1年마다 交逡하고 廩料는 白米 5石 4斗 銀子 160兩입니다.

問: 그대의 배는 公船인가 私船인가?

答: 公船입니다.

問: 船中에 실은 것은 무엇인가?

答: 白米 12包 콩 1包 白鹽 2包입니다.

問: 白米 콩 白鹽은 누구의 것이며 白米 콩 白鹽의 1包는 몇 말이며 1包 값은 각 얼마인가?

答: 白米 콩 白鹽은 本州에서 받은 祿結이고 1包는 각 3斗 5升이고 값은 同一하지 아니하며 豐年 凶年에 따라 다릅니다.

問: 그대들의 祿米는 5石 4斗라고 하여 石字로 말하고 白米 콩 白鹽은 包字로 말하니 石과 包는 같은가 다른가?

答: 다른데 10斗가 1石이 됩니다.

問: 薩州 太守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答: 松平大隅守입니다.

問: 寶島의 前 在番官 이름은 무엇인가?

答: 寺山四郎助 및 東郷助四郎입니다.

問: 薩州에서 鹿兒島까지 水陸路 各 몇 里인가?

答: 원래 陸路는 없으며 水路는 110餘里입니다.

問: 鹿兒島에서 永良部島까지는 水陸路 各 몇 里인가?

答: 水陸路 各 49里입니다.

問: 永良部島에서 寶島까지는 水陸路 各 몇 里인가?

答: 水陸路 各 75里입니다.

問: 薩州에서 江戸 大坂城까지는 水陸路 各 몇 里인가?

答: 일찍 往來한 바 없으므로 道里 遠近은 모릅니다.

問: 어느쪽 바람에 돌아가려고 하는가?

答: 方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느쪽 바람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問: 여기는 日本 西쪽에 있으니 西風이 順風이 될 것 같은데 배에 익숙한 사람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答: 大海에 떠돌아다니면 東西를 분별하지 못하며 船體는 極小하여 바다에서 건디기 어려우므로 本船을 버려 두고 貴國 배로 보내어주기 바랍니다.

問: 배는 小船이라 하더라도 破傷한 바 없어 걱정이 없을 것 같으며 또 배를 부수거나 燒火하는 일은 國法이 없으므로 完全한 배를 버려 두고 그 대들의 所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요.

答: 그러면 候風하여 東으로 向하는 길을 指示하여 生還할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問: 이것은 西浦이므로 東浦로 옮겨 있으면 日本으로 가는 길을 指示하겠소

答: 多幸입니다 多幸입니다.

問: 燃料과 食糧은 모자라지 아니한가?

答: 쌀과 콩은 약간 있으나 海上에서 여러 날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모자랄 것은 알 수 없습니다.

問: 燃料과 食糧은 도와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Ⅲ. 맺 음 말

위의 實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島는 防衛 態勢가 確立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無數한 倭寇 侵犯을 막아낼 수 있었으며 異船에 대해서도 민첩한 行動과 신속한 連絡으로 對處하고 敵船이 아님을 確認하게 되면 극진한 保護와 待遇로써 安心하여 故國으로 돌아갈 수 있게 措處하였다. 濟州島는 異船의 漂到가 頻繁하여 日本 中國 等 隣國 뿐 아니라 琉球 呂宗 安南도 있었고 때로는 和蘭 英國의 洋船도 있었다. 1611年 9月の 琉球國 世子 漂到時와 같은 貪官 非行이 있었으나 非義를 저지른 者는 國家의 尊嚴한 處罰을 받아야 하였다. 이와 같이 朝廷은 友好 交隣의 大義와 人道主義에 立脚하여 漂到한 異國船에 대해서는 恩恤의 德을 잊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